새벽 공습…리비아 방공망 초토화

美·英·佛 주도 군사작전 개시…카다피 결사항전 다짐

프랑스와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오디세이 새벽'이 19일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다국적군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반군 거점인 벵가지 등 각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리비아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날 최초 군사작전에는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이 참여했다.

◇佛, 전투기 공습 개시…美-英 함정은 크루즈 미사일 발사 = 20여대에 이르는 프랑스 공군의 라팔, 미라주 전투기들은 이날 오후 연합군 병력으로는 최초로 리비아 영공에 진입해 4시45분(GMT 기준)께 반군 거점인 동부 벵가지 상공에서 리비아군의 탱크와 군용차량을 공격했다.

아랍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프랑스군 전투기가 벵가지 남서부에서 카다피군 탱크 4대를 파괴했다고 전했다.

리비아 국영TV는 한때 프랑스 전투기가 수도 트리폴리에서 격추당했다고 보도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프랑스군의 첫 공격 이후 몇시간 뒤 미국과 영국 해군 함정들이 리비아 방공망 시설들을 목표로 11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

현재 미 해군 잠수함 3척을 포함해 연합군 함정 25척이 지중해에 배치돼 있으며 윌리엄 고트니 미 해군 중장은 미국과 영국 함정들이 리비아내 20곳을 목표로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리비아군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다국적군 관계자들은 트리폴리 인근 해안에 위치한 리비아 방공망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적군은 또 20일 오전 트리폴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이 가운데 일부 포탄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관저인 '바브 알-아지지야' 인근에도 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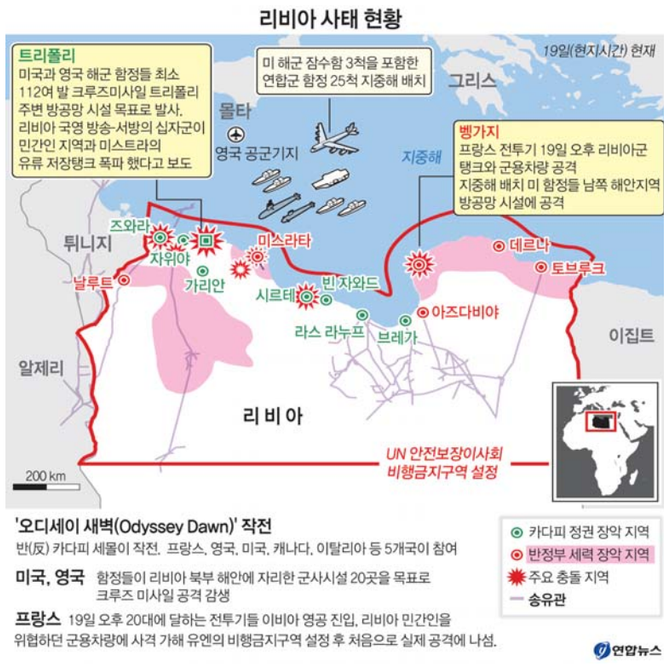
리비아 정부군도 이에 맞서 대공화기로 응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리비아 "야만적 침략행위"..'인간방패' 동원 =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을 '식민지 침탈 공격'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날 리비아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전화연설에서 그는 서방 국가의 군사행동이 식민지 침탈적 공격 행위이자 야만적이고 부당한 침략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국가 수호에 나선 국민의 무장을 돕고자 무기고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카다피 지지자들도 이날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서방 전투기가 공습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시설물에 모여 인간방패를 자처했다.

다국적군의 공습 직후 리비아 국영 매체들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리비아 곳곳의 민간 시설이 폭격을 당해 희생자들이 대거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19일(현지 시각) 리비아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인 벵가지 외곽에서 반군이 격추한 카다피 군 전투기가 폭발해 화염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러시아 등 일부국가, 군사개입 비판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강대국들이 19일(이하 현지시각)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격 개시한 가운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이 대(對)리비아 군사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성급하게 채택된 유엔 결의 1973호에 의해 이뤄진 (다국적군의) 군사개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리비아의 석유를 빼앗고 싶어한다"면서 다국적군의 군사개입을 강하게 비난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도 이날 다국적군의 군사개입을 비판하고 강대국들의 이 같은 전략이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문제란 (그들이)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리비아 내전에 다국적군의 군사개입까지 겹쳐 리비아 민간인들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방사능 공포 현실화

농산물·수돗물 기준치 초과 출하제한 검토…시민들 동요

日정부 "인체 직접적 해 없다"…아시아 각국 검사 강화

후쿠시마(福島) 원전 주변의 농축산물과 식수에서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茨城)현에서 재배된 시금치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의 잔량이 검출됐으며 후쿠시마현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한때 검출됐다고 밝혔다.

◇ 해당지역 농산물 '골라내기' 분주 = 일본 정부는 농산물과 수돗물의 방사성 물질 초과 사실을 발표하면서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음을 유난히 강조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유는 일본인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1년간 마셔도 CT 촬영 한번 했을 때 쬐는 양과 같고, 시금치는 1년간 먹어도 CT 촬영 한번 했을 때 쬐는 양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안심시켰다.

식수나 생활 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경우 후쿠시마현에서 19일 한때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요오드가 발견됐다. 방사성 요오드의 함량은 도쿄(東京)와 5개 지역의 수돗물에서도 발견됐으나 기준치 이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미량이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으나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농산물은 즉각 유명 슈퍼마켓 체인에서 퇴출됐다.

◇ 농산물 공급부족·가격폭등 우려 =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발견되자 일본 정부는 즉시 해당 지역에 농산물 출하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출하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농산물 공급 부족이나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사고 이후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일본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의 각 국가들 역시 일본 농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시금치나 우유의 방사성 물질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기구의 지표도 상회한다. /연합뉴스

연락두절 이와테현 교민 102명중 97명 생존 확인

일본 이와테현에 거주하다 대지진으로 연락이 끊겼던 교민이 대부분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민단을 통해 이와테현에 거주하다 연락이 두절됐던 민단 소속 102명 가운데 97명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진 및 해일 피해가 심각했던 이와테현에서 교민 대부분이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동북부 해안지역에 거주해온 22세대, 70여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추정해왔는데 이 인원이 4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5시 현재 센다이 총영사관에 연락두절 신고가 접수된 우리 국민 1008명 중 918명의 안전이 확인됐고 90명은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사콜센터의 경우 연락두절로 접수된 국민 가운데 80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됐고 160여 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방사성 미세물질 美 서해안까지 도달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미세 물질이 미국 서부해안에서 이미 검출되고 있다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과학자들을 인용해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C버클리대의 핵공학과 에드 모스 교수는 17일 오후 "요오드, 세슘, 바륨, 크립톤 등 핵분열 입자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모스 교수는 그러나 방사선량은 공중에서 완전히 희석돼 대기 ㎥당 1피코퀴리(1조퀴리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피해 이 곳에서 워싱턴으로 대피할 경우 기내에서 이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방사선 관련 질병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오드화 칼륨이 불티나게 팔리는 가운데 방독면과 관련 장비들에 대한 주문도 늘고 있다고 메인주 군납품업체를 인용해 현지 신문이 보도하는 등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피령 원전 인근 환자 800명 방치

대피령이 내려진 후쿠시마(福島) 제 1원전 인근과 쓰나미로 고립된 지역에 있는 환자와 노인들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의약품 부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30㎞ 내 병원에는 정부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환자 800여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 방송이 18일 전했다. 이 지역 환자 1100명 가운데 300명만 외부로 이송됐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반경 10㎞ 안에 있는 후타바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모두 대피하고 환자 98명만 버려져 있었다. 또 후쿠시마 제 1원전 인근 대피소에 피난해 있던 병원 환자 18명이 이송 과정 또는 직후에 숨졌다고 지난 17일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대피소로 피한 노인·환자들도 의약품 부족과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노인과 환자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 병원에서 환자 이송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